

Style

조선일보

MARCH 2024
vol. 266





로렉스 크라운 애플링



요일 전체
표시

ROLEX



3255 무브먼트



프레지던트 브레슬릿

명성과 탁월함

수많은 저명인사와 리더들이 선택한 시계. 1956년 출시된 이 시계는 다이얼 위에 날짜와 함께 요일을 표시한 최초의 시계입니다. 26개의 언어와 18캐럿 골드 또는 플래티넘으로만 제작되는 성취의 변함없는 상징입니다. 데이-데이트.

#Perpetual #변함없는탁월함



OYSTER PERPETUAL DAY-DATE 40
IN 18 CT WHITE GOLD

로렉스 공식 판매점

HONGBOWATCH
홍보시계(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1F
홍보시계 051-808-6500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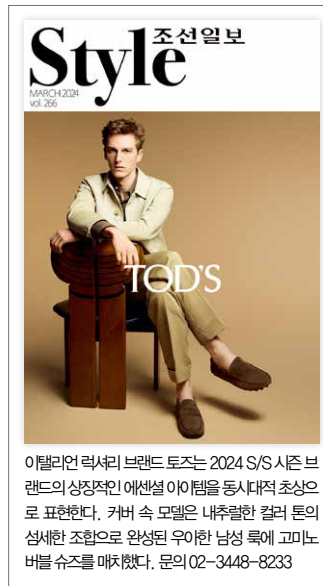
문의 02 3280 0104



DIOR

LA ROSE DIOR COLLECTION
White gold, pink gold, diamonds and amethyst.





2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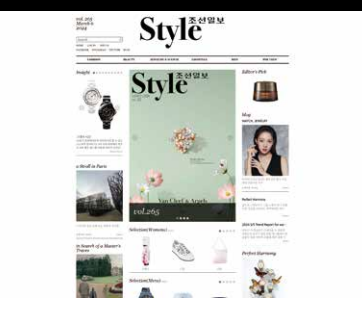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266 March 202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 신정임 sjl@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제작 |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화 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김진희 hgkim@chosun.com
재무·노연경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리타리프레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월 9·10·12일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요. stylechosun.com

13 **FIRSTTIME**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줄, 프레시맨을 위한 엔트리 위치.

16 **예술 여행에서 발견한 강릉의 힘** '로컬의 미학'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관련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바다 내음 가득한 강릉의 미적 정체성을 새롭게 영입하기도 해줄 만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옛 명성과 현대 문화를 잘 조화해 세계화하는 일이 요즘 '로컬라이징'의 숙제인데, 지금 변화하는 강릉의 모습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 **경향해야 할 수 있는 세계, 필립 파레노**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시대. 관련 기업의 주식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산업을 넘나들며 'AI'와 '챗 GPT'란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런 열기(?) 때문일까. 지난 2월 26일 라움미술관에서 열린 프랑스 예술가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의 전시 기자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4개월에 걸쳐 펼쳐질 전시 <VOICES>는 필립 파레노의 예술 세계를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7월 7일까지.

19 **BACK IN FULL SWING?** 팬데믹 기간, 글로벌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in Hong Kong)이 열리는 3월 말에 오색찬란한 매력 이 흐르는 아트 주간의 추억을 떠올리는 문화 예술 향유자가 많았을 것이다. 마스크를 쓴 얼굴이 거의 사라져버린 올봄에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홍콩다운' 다국적 장이 완전하게 펼쳐질까? 오는 3월 26일 VIP 프리뷰로 시작되는 페어에 40개 국가와 지역의 2백43개 갤러리가 참가해(전년 대비 37% 증가) 팬데믹 이전 규모로의 복귀를 알렸다.

20 **MEN IN BLUE** 자유와 남성미의 상징이자 불수록 답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자아내는 컬러, 블루 다이얼을 품은 워치.

21 **WALKING IN JOY** 자연스러운 풍유와 세련된 멋을 겸비한 맨즈 스니커즈.

22 **BIGGER IS BETTER** 넉넉한 수납력과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리스함까지 챙겨줄, 다시 돌아온 빅백.

23 **PEACH FUZZ** 2024년을 대표하는 컬러로 은은하고 연한 코랄 컬러인 피치 퍼즈가 선정되었다. 화랑과 배려의 상징인 따뜻하고 포근한 색상을 입은 패션 뷰티 아이템.

24 **BE MY BOY** 심플한 실루엣으로 더욱 스타일리스해졌다. 2024년 봄, 여름 남자들의 패션 포트폴리오.

32 **DREAM DESK** 감각적인 소품으로 사재에 대한 남자의 로망을 가득 채워줄 스테이셔너리 셀렉션.

33 **BLOOMING DAYS**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메이크업에 생기를 더해줄 시간이 왔다. 보기만 해도 살리는 스프링 코즈메틱.

34 **EDITOR'S PICK** 생기 있고 탄력적인 피부 컨디션을 선사할 뷰티 리스트를 만나보자.

© GRAFF.COM



LAURENCE GRAFF SIGNATURE

G R A F F

크리스탈 버클 포인트의 브로치와 버비에 버클 세로로 입어주는 로저비비에.

브라운 컬러의 반투명 프레임 신글라스 4522천원 **바버리** by 에실로룩스타카.

우븐과 합피를 믹스한 하이브리드 소재로 탄탄한 세이프를 완성해주는 트리니티 홀더백. 27X16X6cm, 33만8천원 **조아그라아논**.

18K 핑크 골드 소재에 0.65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 67개를 세팅한 짜깁기 보형 핑크 골드 더블 모티브 뱅글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부쉐론**.

80톤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개배 세팅한 마틴 로렌스 아이버링 가격 미정 **디에니**.

크리스탈을 완성한 조수달 모티브 루나 펜던트 20만5천원 **스미르노프스키**.

엔보드 레더에 나파 가죽을 더하고 다이아몬드 로고로 완성한 리버사블 벨트 45만원 **MCM**.

로즈 골드 소재에 5개의 무빙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주고 카프 스킨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한 해피 다이아몬드 워치 1천5백50만원 **소파드**.

100% 카프스킨 소재에 부드러운 인레이 클라식한 무드를 지어내는 슬링백 로퍼 1백10만원대 **토트**.

양쪽에 개운스퀘어의 디자인을 카프스킨과 누스 페이퍼를 카프스킨과 스카이드로 핑거링 70만원대 **부쉐론**.

램 스킨에 골드 메탈과 이디케이션 필 장식으로 완성한 체인 클러처. 2.5X9.5X3.5cm, 가격 미정 **샤넬**.

세상에 강한 새를 표현한 러커 골드 파우싱 메탈 소재 다이얼로 드 카르파에 키링 70만원대 **까르파에**.

18K 화이트 골드에 0.75캐럿의 파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이링 1천5백90만원대 **그라프**.

엘로 골드에 화이트 골드를 얹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볼드한 매력을 자아내는 석세스 링 1천50만원 **프라드**.

카프 스킨 소재로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는 캐벌 소재를 9백30만원 **로제비비**.

모던 라틴 실루 소재로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에이드리언 셔츠 1백30만원대 **필프 로렌 캄페선**.

로저비비에 02-6905-3370 에실로룩스타카 02-501-4436
에르메스 02-542-6622 조아그라아논 02-540-0507 부쉐론 02-3479-6028 디에니 02-515-1924 스미르노프스키 1522-9065
MCM 02-540-1404 소파드 02-6905-3390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샤넬 080-805-9628 토트 02-3448-8233 필프 로렌 캄페선 02-3467-6560 그라프 02-2256-6810 까르파에 1877-4326 프라드 02-514-3721 로제비비 02-6200-7799



JOY GRYSON



#시선 집중

단조로운 헤어스타일에 포인트를 더할 헤어 클립 4. (위부터 차례대로) 부드러운 숏이커저 소재에 골드 컬러의 실몬느 로고와 독특한 프라임을 다룬 트리오프 스냅 헤어 클립 57만원 **셀몬느 바이 에디터**인, 문의 1577-8841. 아이코닉한 마우미우 로고가 돋보이는 블랙 컬러의 벨벳 소재 헤어 클립 가격 미정 **마우미우**, 문의 02-541-7443. 은은한 골드 컬러 메탈에 크리스탈 이클레키와 비즈 장식으로 꽃 모티프를 완성한 비비에 블로섬 헤어 클립 69만원 **로지 비비에**, 문의 02-3479-6115. 하트 디테일 속 인트로딩 GG 로고 세이브에 반짝이는 크리스탈을 다룬 레진 소재 헤어 클립 57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521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TIMELESS CHIC

이탈리언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에서 2024 S/S 시즌을 맞아 T 타일리스 컬렉션을 선보인다. 컬렉션 중 단연 돋보이는 제품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부각하는 T 타일리스 발레리나 슬링백. 토즈에서 기존에 선보이던 수츠와 달리 슬림해진 실루엣과 여성의 발목을 돋보이게 하는 스트랩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브리치 처리한 카프 스킨 레더 소재에 미니 메탈 T 타일리스 액세서리를 장착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았다. 디테일한 장인 정신에 세련된 감성을 입힌 T 타일리스 발레리나 슬링백은 일부 토즈 매장 및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RUSH ON COLOR

S/S 시즌을 맞아 기본 전환이 필요하다면 싱그러움 컬러감의 뷰티템을 유심히 살펴볼 것. 에르메스에서 풍성한 컬러가 특징인 루즈 에르메스 & 레멍 에르메스 2024 S/S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을 출시했다. 에르메스 뷰티 오브제의 크리에이터 피에르 아르디가 디자인한 립스틱은 물결처럼 무한히 파져 가는 프리즘처럼 느껴지고, 원형 디스크의 컬러가 조화를 이루 불 햇살을 연상시킨다. 또 에르메스 뷰티 크리에이터 디렉터 그레고리스 피르필라스가 선보이는 새로운 컬러 네일 에나멜까지, 순수한 기쁨을 표현한 화사한 컬러감으로 반짝이는 봄을 맞아 해보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에르메스 레멍 에르메스 36 오렌지 토닉, 62 블루 알렉트릭 각 15ml 7만2천원, 루즈 에르메스 47 루즈 시네틱크 3.5g 11만2천원. 문의 02-310-5174



공간의 미학을 해아리는 브랜드라면 우리네 화산섬 제주의 고유한 미를 고민하기 마련일 것이다. 아니, 이 아름다운 명에 들어설 브랜드 공간을 생각하는 건 외려 기쁘기 그지없는 과제가 아닐까. 1872년 덴마크에서 탄생해 가구, 조명, 오브제 등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굳건한 강자로 자리매김해온 프리츠한센의 제주 스토어는 한눈에 그런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더가온다. 북으로는 제주 꽃자랑 도림공원, 남으로는 가파도가 사이에 닫기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라는 지명으로 더 익숙한 이 동네에 지난 3월 초 프리츠한센 제주 스토어가 문을 열고 화사하고도 청산한 지대를 뿔냈다. 도심의 혼한 수직적 지대와는 다르게 깔끔한 하얀 벽을 드러낸 단층 건물들로 구성된 프리츠한센 제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이자 라운지와 카페, 야외의 풀 등을 거느린 복합 공간답게 여유로운 분위기를 물론 볼거리도 남달랐다. 덴마크 알라르데에 위치한 프리츠한센 본사의 디자인 홀과 모습이 닮았다고 하는데, 그 홀을 장식하는 조형물 컬러 활부터 작년 코펜하겐의 디자인 페어 3데이소브디자인(3daysofdesign)에서 선보인 '큐브(The Cube)'까지 특별히 전시되어 있다. 물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에그스와 시리즈 7-PK22 체어 등의 상징적인 가구 컬렉션과 동시에 최고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완성한 7헨파라리 컬렉션도 공간을 수놓고 있다.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세레나데 속에서 유유히 오리를 뿔어내는 가구들 사이로 다양한 회화 작품이 걸려 있는 근사한 조화도 눈을 잡아끈다(여주 갤러리와의 협업으로 역시 구매 가능하다고). 그리고 야외에 놓인 스카커라 컬렉션의 기다란 의자에 누워 바라보는 매력적인 풍경은 역시 제주라는 김탄사를 절로 뱉게 한다. 글 **고성연**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810-4
FRITZ HANSEN IN JEJU

이번 사엘의 2024 S/S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은 봄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플라워의 향연이었다. 버지니 비아르가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얻은 공간이 빌라 노아이유의 정원과 수영장이라고 밝혔, 따스한 정원과 여유로운 여가 생활 등을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과 소재가 유독 눈에 띈다. 이 두 가지 수즈를 보면 한번에 납득이 갈 것. 곧 하나 없이 비덕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듯한 플랫 슬링백 스타일로 클래식함과 우아함을 모두 담았다. 화이트 컬러의 경우 스트라스 임브로이더리라는 반짝이는 소재로 포인트를 주어 적절한 믹스 매치의 품격을 보여준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LOVELY STEPS



위대한 유산

소재의 우아함을 테마로 삼는 로로피아나가 2024 S/S 컬렉션을 맞이해 앞서 라자와 마이크로 사이즈로 출시했던 베일 백의 스몰 사이즈 버전을 추가 선보인다. 베일 백의 디자인은 시간이 지남도 변치 않는 아름다운 스타일을 추구하던 로로피아나 일가가 발견한 최상급 캐시미어 소재를 담은 꾸러미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그 때문에 매종의 유사 깊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이번 신제품은 부드러운 숏이커저족으로 완성했으며, 메탈 소재의 주얼리 잠금장치를 독점함을 더했다. 또 끈더더기 없이 유연한 보디 실루엣과 그림감이 좋은 더블 핸들, 측면에 연결된 코튼 소재의 스트랩을 장착해 무드에 따라 토티백뿐 아니라 크로스 백으로도 다채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문의 02-6200-7799

ANOTHER ROSE

다들 하우스의 특별한 역사에 찬사를 보내는 몽환적인 라인. 로즈 드 방 컬렉션에서 신제품, 에드워드 방을 선보인다. 이번 제품들은 기존 장미를 새롭게 해석해 컴팩트 형태로 확장한 것이 특징. 이는 빅토리 드 카스텔란의 창의성을 담은 무수 다들의 라키 스타를 떠올리게 한다. 12mm, 17mm, 25mm의 다양한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으며, 다이아몬드 핑크 사피어, 생동감 넘치는 그린 컬러의 차보라이트 가닛 등을 더해 새롭게 거듭났다. 우아한 네크리스는 물론 이어링, 브레이슬릿 등 풍성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들 하우스의 헤리티지와 아틀리에의 창의적 열정이 담긴 아트 피스를 만나보자. 문의 02-3280-0104



클래식의 미학

워치메이킹의 장인,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우아한 매력과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새로운 트래디셔널 매뉴얼 와인딩 워치를 소개한다. 지름 38mm의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와 매력적인 컬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그린 섀바스트 다이얼이 만나 트래디셔널 컬렉션의 디자인 코드를 담았다. 무엇보다 65시간의 넉넉한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며, 인하우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4400 AS로 구동한다. 이는 사피어 케이스 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데, 하이 워치메이킹 타임피스만의 시그니처와 같은 세련된 코트 드 제네브 패턴 장식 또한 볼 수 있다. 톤온톤 알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제공한다. 문의 1877-4306

TOUCH BY TOUCH

가칠아인스 보화는 물론 다가울 볼, 상큼한 파파자로 향료까지 자각할 핸드크림.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타 메르다메르 핸드크림** 세계 최초 암시들링 향료를 사용해 플라워와 머스크의 은은한 향이 조화를 이루며 비르는 촉촉 흡수되어 끈적임 없는 마무리가 특징이다. 60ml 3만2천원. 문의 1688-4296 **콩데르틀레아 트윙클 핸드크림** 재스민과 밤꽃 향을 담았으며, 크림리한 제형에 아보카도 & 유칼립투스 오일, 사바바를 함유해 풍부한 보습감을 자랑한다. 50ml 2만2천원. 문의 070-8846-8430 **탈바르즈 벨 퍼플 핸드 크림** 니 달콤한 호박 향에 스카피아한 진자와 상큼한 오렌지 향을 더했으며, 부드러운 코코넛 알카리 잔향을 남기고, 촉촉한 제형으로 수분감을 더해준다. 30ml 3만2천원. 문의 1644-1246 **룩사경 사바바 트리 스킨 핸드크림** 오리지널 사바바와 유채씨를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 보습 장벽을 강화해주고 부드러운 제형으로 빠른 흡수력을 자랑한다. 30ml 1만6천원대. 문의 02-2054-0500



LOVE RIBBON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3월, 사랑스러운 모먼트를 선사해줄 리본 모티프 주얼리.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총 1.9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루반 이어링 4천2백원대 **사엘 화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대법한 리본 디자인이 특징인 크리스탈 세팅 볼타 펜던트 33만원 **스외로브스키**, 문의 02-6911-0883. 코르셋을 연상시키는 여러 줄의 리본이 진주 장식이 사랑스럽고 화려한 멋을 선사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르셋 마세틱 링 가격 미정 **타카미**, 문의 02-3461-5558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윤자영**





예술 여행에서 발견한 ‘강릉의 힘’

예술, 건축,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도 평온한 도시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로컬의 미학’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관련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바다 내음 가득한 강릉의 미적 정체성을 새롭게 영글어가도록 해줄 만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동안 현대미술에서는 볼모지나 다름없던 강릉에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같은 예술 축제가 열리고,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이 제주, 여수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잠재력 있는 국내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등장하거나 타지 작가가 작업실을 꾸리는 등 전반적인 풍경이 달라진 요즘이다(2021년부터 정부의 문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문화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사실 강릉은 도시 전체에 문화유적지가 많은 곳이다.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 허난설헌과 허균, 매월당 김시습의 자취부터 고즈넉한 천 년 고찰, 아름다운 정원 선교장까지 ‘강원도의 힘’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 아닌가. 지난해 2회째 열린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의 주제도 1913년 강릉 김씨 여성의 시각을 담은 〈서유록〉. 옛 명성과 현대 문화를 잘 조합해 세계화하는 일이 요즘 ‘로컬라이징’의 숙제인데, 지금 변화하는 강릉의 모습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릉을 상징하는 소나무 언덕에 들어선 ‘솔움미술관’이 요즘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리처드 마이어가 세운 마이어 파르티스에서 설계를 맡아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 미술관은 시내 풍경을 멋진 파노라마 뷰로 담을 수 있는 위치에서 절강한 자태를 뽐낸다. 마이어 파르티스의 언덕호 대표는 개관 기자 간담회 때 “전시 작품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건축물 자체가 완벽히 조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하학적 형태가 투명해 보이도록 백색 콘크리트와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유리 통창을 활용해 외부 조경을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게 한 미술관 건물은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조형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건축이 다가 아니다. 명품 미술관 하나가 한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3년여에 걸쳐 개관을 준비했다는 이 미술관은 인상적인 기획전으로도 시선을 끌었다. 현대미술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이탈리아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를 한국 미술관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다.

#폰타나로 시작을 알린 솔움미술관에 가는 기대와 우려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의 기획과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협력으로 이뤄진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이 전시에 선보인 폰타나의 작품으로는 1940년대 후반 ‘공간주의 선언’ 발표 이후 본격화한 공간주의를 대표하는 ‘베기(Tagli)’ 연작, 캔버스에 구멍을 뚫은 ‘뿔기(Buchi)’ 연작 등을 비롯해

‘공간 환경’ 연작 6점이 포함된다. 빛과 공간으로 확장된 폰타나의 공간 환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볼 수도 있는데, 그가 1964년 발표한 ‘백색선언’에서 강조한 “우리는 예술의 진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라는 말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현실이라는 공간을 잊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은 마치 우리 스스로가 작가의 캔버스 위에 놓인 듯한 느낌일까. 한국 미술과 세계 미술을 연결하겠다는 비전 아래 솔움미술관이 선택한 한국 작가는 박인식이다. 〈In Dialog: 박인식〉전이 폰타나 전시와 더불어 오는 4월 14일까지 열린다. 시대를 공유했지만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작가의 전시 호흡이 흥미롭다. 독일에서 미술사를 오래 공부해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김적모 솔움미술관 관장은 해외 작가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작가와의 다이얼로그를 꼭 성사시키고 싶다고. “지금 한국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했잖아요. 그만큼 미술도 현학적인 기술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결국 미술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하죠. 그런 점에서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 선구적으로 작업한 사람이 폰타나라고 생각했고, 원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인식 작가의 예술성도 폰타나와 미학적인 다이얼로그와 연결됩니다.” 그는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미술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미술가들은 틀에서 도망가고 미술사학자들은 틀 안에 넣으려고 하죠. 거기에서 애매모호한 위치가 미술관입니다. 솔움미술관이 진정으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미술관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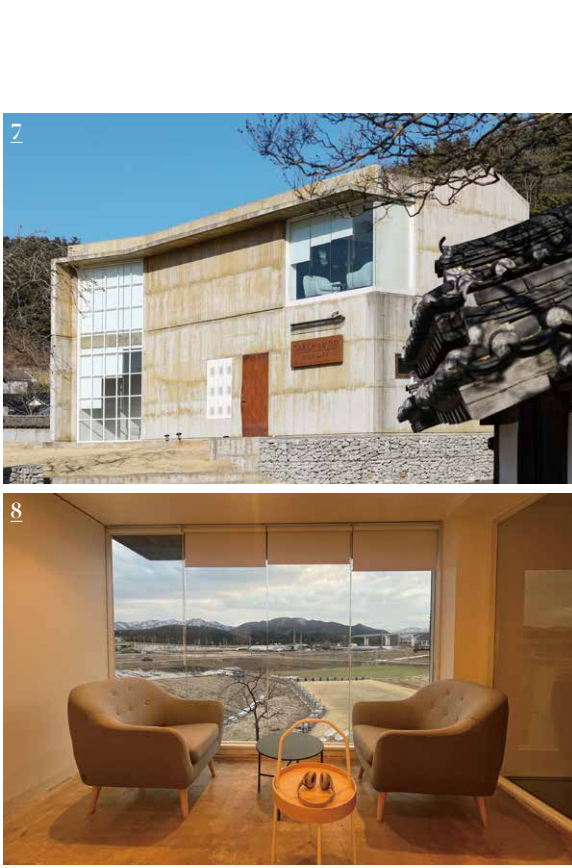
오는 5월부터 열릴 다음 전시도 눈길을 끈다. 미국 추상 표현주의 작가 아그네스 마틴의 개인전과 정성화 작가 전시가 예정돼 있는데, 런던의 대표적인 미술관 테이트 모던 전 관장인 프랜시스 모리스가 큐레이터를 맡았다고. 그런데 현지점에서는 약간의 우려를 보내는 시선도 있다. 그동안 위탁받았던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의 임무가 오는 8월 종료돼 두 번째 전시를 마치면 강릉시가 미술관 운영을 맡게 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청사진이 없다.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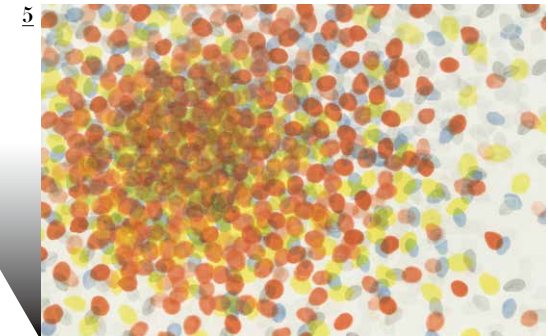
과 세계를 잇는 취지의 좋은 구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과 더불어 한 갤러리의 소속 작가들만 조명받는 일이 없는 균형도 필요할 것 같다.

#논발 한기운대의현대미술 공간, 대추무파인아트

대추무파인아트의 설화경 대표는 여러 우려에도 아그네스 마틴 같은 대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솔움미술관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대추무파인아트는 영국에서 파인 아트를 공부한 김래현, 그리고 서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설화경이 공동 대표로 운영하는 강릉의 현대미술 전시 공간이다. ‘예술 나눔 리더’라는 비전으로 강릉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대미술 전시를 선보이는 대추무파인아트는 건물 외관이나 내부 공간은 무척 모던한데,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전당은 ‘논발’이라는 점이 힐링 포인트다(게다가 바로 옆에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택 ‘임경당’이 자리한다). 다양한 작가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젊은 작가 공모전인 ‘대추무 오픈콜’도 진행하는데,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지난해 ‘내일의 작가상’에 선정된 작가 고사리의 작업을 볼 수 있었다. 1층에서 마추친, 짧은 연극 무대 같은 고사리 작가의 작품은 대추무파인아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공간에 길게 드리운 얇고 긴 비닐을 헤치고 작품 안으로 들어서면 사방에서 비닐이 사그라들며 무뎠히는 소리가 아름답게 울리지만, 계속 비닐이 사이를 가려 어딘가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드는 몽환적인 공감각적 작업이다. 2024 ‘대추무 오픈콜’도 3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고향인 강원도를 떠났다가 돌아온 작가,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작가, 강원도로 이주한 작가 등이 바다, 바람, 눈 등 강원도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심하게 다뤄졌던 오래된 공간이 예술 공간으로 조금씩 바뀌는 사례도 눈에 띈다. 좀 더 로컬리티를 담고 표현하는 예술가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은 지난해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프랜시스 알리스의 작품 ‘오래 위의 선(SANDLINES)’을 상영했고, 대관령 ‘차유의 숲’을 중심으로 활용해 베를린에서 주로 활동하는 티노 세갈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노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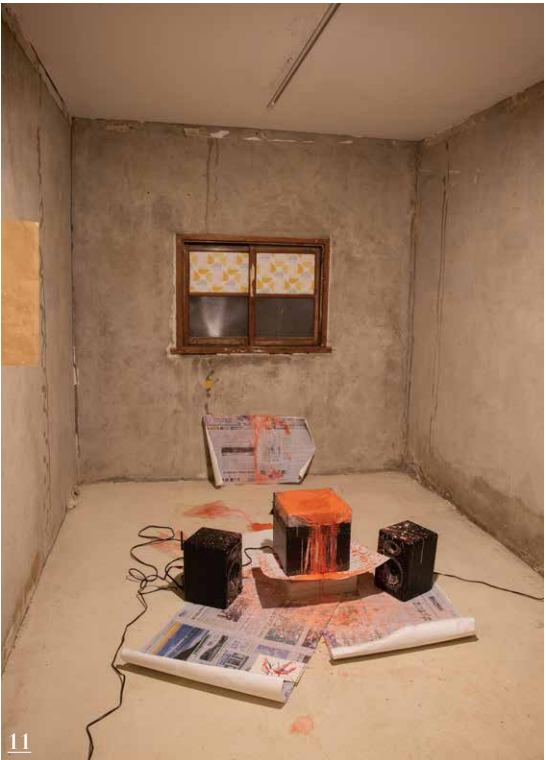
1 지난 2월 14일 강릉의 새로운 공공 미술관으로 문을 연 솔움미술관 외관.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세운 마이어 파르티스에서 설계를 맡았는데, 건물 자체가 백색 조형물처럼 보인다. ©솔움미술관 2 솔움미술관 로비 천장에 설치 작품 ‘제외의 일’은 트라젠스베를 위한 내온 구조가 매달려 있는데, 절제된 건물에 비치는 작가의 한자처럼 보이기도 한다(하얀 천시종로 뒤 떠나야 하는 조건이라 영구 설치는 아니다). ©솔움미술관 3 솔움미술관 제1전시실에 설치된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전시 풍경. 현대미술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를 소개하는 미술관 전시로는 한국 최초다. 4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 개념, 기다림(1969). 캔버스에 아날린, 베기, 100 x 100cm, 루치오 폰타나 재단, 밀라노. 5 루치오 폰타나 전시와 함께 세계의 미술과 한국 미술을 연결하는 취지로 연결한 전시 프로젝트 〈In Dialog: 박인식〉 중 박인식 작가의 작품 81-C(1981). 캔버스, 종이에 채색, 164.5 x 227cm, 유족 소장. 6 박인식 작가의 작품들을 설치한 솔움미술관 제3전시실 모습. 7 강릉에서 현대미술 전시를 선보이는 공간인 대추무파인아트 건물 외관. 김래현, 설화경 대표는 모두 강릉에서 태어났는데, 각자의 길을 걷다 다시 강릉으로 돌아와 만난 인연이다. 8 대추무파인아트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광활한 논밭이라는 점도 이채롭다. Photo by 고성연 9 대추무파인아트에서 선보인 고사리 작가의 설치 작품들이 무척 신선했다. 10 베셀 작가와 김지수 작가 공동 운영하는 갤러리 버정가의 외관이 도발적이다. 11 갤러리 버정가에서 선보였던 김지수 작가의 설치 작품, ‘브라썬스피커 3개’(2023). 12 제주, 여수에 이어 2021년 말 강릉에 문을 연 갤러리 마이어 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 외관. 관람한 뒤 밖으로 나와 강릉호수를 신채하거나 숲이 펼쳐진 하얀, 하얀색의 기념공원을 신채하면 강릉의 자연스러운 장엄을 느끼기에 좋다. Photo by 고성연. ※ 1~6 이미지 제공: 솔움미술관



널, 옥천동 웨어하우스, 동부시장 레인보우 전시장은 공간 자체를 전시한 느낌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공간부터 로컬 크리에이티브까지

서울 생활에 지친 작가나 강릉을 연고로 작업하는 작가의 미적 감각을 드러내 보이는 공간도 생기고 있다. 물론 시작 단계지만 기대를 걸 만한 잠재력은 있어 보인다. 크리에이티브 사이에서 임소문이 나기 시작한 갤러리 ‘버정가’를 운영하는 김지수 작가(베셀 작가와 공동 운영)는 오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강릉으로 내려온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녀 역시 강릉에서 나고 자라, 몸으로 담은 세상 이야기 ‘몸의 기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 요즘 강릉은 여러 혼란스러운 면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오랜 교장의 역사성과 2017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생긴 KTX로 전국에서 외국인과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여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해요. 커피 한 톨 나지 않는 강릉이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지방이 되기도, 이탈리아 셰프들의 유입으로 이탈리아 음식의 성지로 거듭나기도 하며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몰려오고 있죠. 요즘 많은 문화 자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착 지회 같은 창작자에게 제값되는 문화적 자극은 작아 보입니다.”(대추무파인아트와 버정가의 기획으로 전시했던 〈시골영감〉 도록 중). 아직은 작업실에서 미래를 모색하는 일이 더 많지만, 버정가의 올해 스케줄은 뽐뽐하다. 전시 〈용강동에서 살아남기〉와 〈운명적 데이타〉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트 스톱 오픈홀 계획이다. 예술과 문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뮤지션 박현준(대중음악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베이시스트로 H2O, 삐삐밴드, 삐삐롱스타킹, 3호선 버터플라이 등에서 활동)과 20년간 잡지 에디터였던 김정민 부부가 공동에 오픈한 라이프 스타일 편집숍이자 카페 ‘데어’에서도 곧 작가들과 함께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할 예정이다. 서울을 떠나 소도시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던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 강릉에 들렀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교동의 분위기에 반해버렸고, 그



날로 강릉 이주를 결심했다고. 이들은 강릉문화재단 사업인 ‘작당모의’를 통해 이주민의 새로운 시선으로 발견한 강릉의 자연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음악과 요리로 선보이기도 했다. “레이가 있는 길에 예전의 신사동 가로수길 같았거든요. 크리에이티브들이 막 읊트기 시작한 그때의 열정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주민의 시각으로 레이가 지역 사회의 예술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과 다양한 연대를 하고 싶어요.”

고요한 옛 골목길에 열정적인 크리에이티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갤러리를 꾸리고, 한편에서는 세계적인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이 막 생겨난 곳. 지금 강릉의 모습이다. 예술 산에서는 볼모지나 다름없던 강릉이 과연 이런 변화를 잘 이어가 지역사회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크고 작은 움직임이 모여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김수진·프랜시스 에디터 & 더블렌트 CD)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는 언제 진행되는 완결형 형태가 있는 작업을 추구하지 않는다. 2016 년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전시 〈Anywhen〉에서는 위대한 거대한 스코크, 공동을 떠나지는 물고기, 공성, 산비탈은 영상과 음향으로 더반을 채웠고, 관람객은 바닥에 놓여가 풍선을 힘을 주어 공기를 강하게 때려오는 공간의 일부가 되어 작품을 함께 완성해갔다. 그는 조명, 영상, 음향, 인공지, 퍼포먼스 등 다양한 요소를 도구 삼아 전시장 전체를 작품으로 만들고, 시자의 흐름과 함께 관객이 모면 변화하고 오소게 만든다. 설치되어 구기 기발하게 어이없는 보지 않는 작품이 특징인 형태의 예술은 아니다. 현대미술에는 퍼포먼스, 시몬도, 빛으로, 영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매체를 서서 작업하는 예술가가 많지 않았다. 그들만 그의 작품 세계가 자신 독백성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필립 파레노의 작품 세계를 망라한 사베이 인 리움미술관(베르스 VOICES)가 그 전시가 팔도 모으었다.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시시각각 바뀌는 미술관

이것이 최대 개편이다. 수사에서 집적화 수 및 미술관 내부로 전원을 활용하는 이번 전시는 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동안 미술관의 상징처럼 자리를 지켜온 야외 조각의 지평 큰 나무와 눈의(Nall Tree and the Eye) 단상 13.6m 높이의 지평을 아예 없애고 싶었다. 이곳 바로 공원의 '반디드롭글라스' 생김이 작품의 이름은 '막혔다'. 이상한 소음을 내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타워는 42개 센서로 주위의 기온, 소리, 풍향, 속도, 진동 등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미술관 앞으로 송출되어 사드를 만들어내는, 또 미술관 전원을 살아 움직이는 듯한 유체처럼 만든다. '막'은 작업의 시작이 되는 예-치원을 모두 미술관 내부로 공급하는 일종의 허브인 셈이다. 전사할 홀의 스크린에서 개개의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타워에서 전송한 데이터로 만든 영상이다. 왼쪽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한 풍경 영상이 거의 정지한 듯 다가가 움직이고, 오른쪽 영상은 외부 환경 데이터에 반응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편 막은 미술관 지하 1층에도 작품의 예제 작품을 보았다. 수식 기의 활동이다. 떠 있는 공간에서 서브백이는 활동권 전구, 규칙적인 요소는 벽 등 계속 변화하고 움직이는 작품. 차양은 이곳이 바깥의 세계와 연결된 공간임을 보여준다. 필름 페인은 이 문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미술관은 닫혀 있는 공간이고 외부로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겹쳐진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가 조절됩니다. 기가 예를 내고 싶었습니다.' '보이스는 전신인 기가 매달린 전신장 안에는 오묘한 시공이 겹겹이 들어 있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배우 배우의 목소리 온 몸을 활용해 새로운 목소리를 창조했다. 이 목소리는 통사-주어-목적어 순의 체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언어 '스(멀티메이)를 통해서이다. 전신장 한편 '사람 바깥'이란 영성 작품 속 캐릭터 인기가 배우들의 목소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중얼거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하는 주위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다. 기가 예도 우리 박이 보내는 데이가기 활동이다.

Exhibition in Focus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세계, 필립 파레노

생성형 인공지능(AD)의 시대. 전 세계 거의 모든 기업이 이 초현실적인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지 경쟁하고 있다. 관련 기업의 주식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산업을 넘나들며 'AI'와 'GenAI'란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AI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등 인간만의 '능력'이라 여겨온 창작의 영역까지 빠르게 손을 뻗었다. 이런 열기(?) 때문일까. 지난 2월 26일 라움미술관에서 열린 프랑스 예술가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의 전시 기하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인공지능는 단지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며 스스로 설을 그렸듯 그의 작품을 그저 인공지능의 영역에 가두려는 안 된다. 4개월에 걸쳐 펼쳐진 전시 <VOICES>는 최첨단 기술을 요리며 스펙트럼을 확장해나가는 필립 파레노의 예술 세계를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7월 7일까지.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인식

또한 작품이 바깥 막에 의해서 건어다. 전시장 곳곳에 놓인 라일리드 파크의 누리는 실제는 소위 새로운 만년에 점점 행태를 잃을 줄 없게 놓여 있다.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작품 보호자 일정한 운송도를 유지하는 미술관에서 누리를 보다야 하는 풍경이 아니라, 하 게 느껴진다(누리는) 녹아 없어진 빈수가 새로운 누리를 내놓는다. 또 정방에 놓인 평평한 누리는 누리의 작품 '혼란'의 시가: 일 년 중 심상 개은 예술 작품과 12월은 크리스마스노(그림 그대로 시에 관한 아티스트는 단 방식으로 확장한다). 작품: 전지 경을 해 질 무렵 사냥할 때 사색으로 감과 풍환치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역시 2002년에 선보인 '사냥할 만할, 기브 라일드', 지어진다: 다른 사색의 단편만 작품이다. 주황빛과 노란 빛을 갖는 물고기 모양의 켈름 풍선 이 관람객들 사이로 자유롭게 유영한다. 2018년 베를린의 미술 그로우프스 누리에 선보인 내 방은 또 다른 아티스트(My Room is Another Fishbowl) 작품을 재 현한 모습이다. 거대한 아형에 갇힌 물고기와 켈름 우에다 관찰하는 인식이 있다. 그 안에서 누리의 존재와 주변 환경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으로 미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작가의 또 다른 주적이다.

지난 수년간 리움미술관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가 여러 열렸지만, 개개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라면 아마 쉐켄(Chagall)의 전이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예술도 기술적재로 가득 차고, 다지고는 사대여 기가대는 천재 아티스트인 앙리 쉐켄의 아가아들이 가슴을 찡토 뚫어 놓았었다. 기술을 예술에 적용하고, 인간이 언어는 사용한다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파격이고 공통점이 많기도 하다. 기술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고도의 테크닉이 아니라, 가치와 아름다움의 유무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아가아들. 아가아 그 하나 정지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순간과 과정이 작품을 만들고 기술과 예술을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필립 바버. 당장은 어떻게 감상하겠는가? “그의 작품은 선험학처럼 철학적으로 초조하고(nat)”는 김성원 부관장의 말처럼 직접 공간의 일부가 되어 경험한다만 비로소 이해의문이 열릴 것이다. **글 김민서**



아트 페어는 엄밀히 말하면 크고 작은 몇몇 깊은 플랫폼들이다. 그렇지만 바르나스 스페셜트 엑스포를 떠나 우리 도시에 엄청난 에너지를 몰고 오며 홍콩 사책자(香港三策者)라는 세 대 열병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바셀 홍콩(巴賽爾香港/Basel in Hong Kong)은 홍콩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한대비를 애호가, 더 나아가 미술 화에올게게 무시 못할 존재라고 필름을 발췌하는 클럽의 5인 미디어이다. 주 전 시장은 홍콩 컨벤션 센터(HKCEC)를 찾는 관람객 수만 8만 명에 이미 출몰했는데, 또다시 전통로 바르나스는 아주 작은 자발인 뿐이다. 허버 프러턴의 전제를 무대로 하는 워킹 아트 페어 아트 비엔날레(Art Central)를 비롯해 아외의 질은 녹아 내릴 히키가 영감을 독출는 조각 구역, 단극단 인력과 자원의 조합으로 또다시 매력을 끌어내는 홍콩 공공의 일관된 프로그램, 아트 마티에 공동되는 명품 브랜드들의 세련된 부대 행사, 몸값 높은 홍콩 센트럴을 피해 도시 구석구석까지 생겨난 다들(가) 공간이나 스페셜 갤러리 등 고요로 대개하고 복합다(다)한 풍경이 펼쳐진다. 본 단위로 시간을 쪼개면서 도시 곳곳에 퍼져있는 동산들(가)도 홍콩의 근사하게 단정한 채색자(가) 아이들(가)는 세 여성도 흔하(가) 하(가)로 솜(가) 있어(가) 고풍 건물(가)의 개관을 오래(가)하며 아트 신생(가)을 분(가)하(가)는 다(가)적(가)인(가)만큼(가) 구경(가)하는 자(가)와(가) 대(가)로(가) 경(가)를(가) 돌(가)고(가) 여(가)에(가) 상(가)한(가) 담(가)성(가) 맛(가)을(가) 틈(가)이(가) 섰(가)라는(가) 모(가)는(가) 창(가)과(가)이(가) 생(가)한(가) 수(가)의(가) 아(가)도(가), 홍콩을 둘러(가)며(가) 러(가)상(가)한(가)이(가)공(가)적(가)으로(가) 전(가)파(가)되(가)기(가)를(가) 바(가)라는(가) 아(가)유(가)이(가) 주(가)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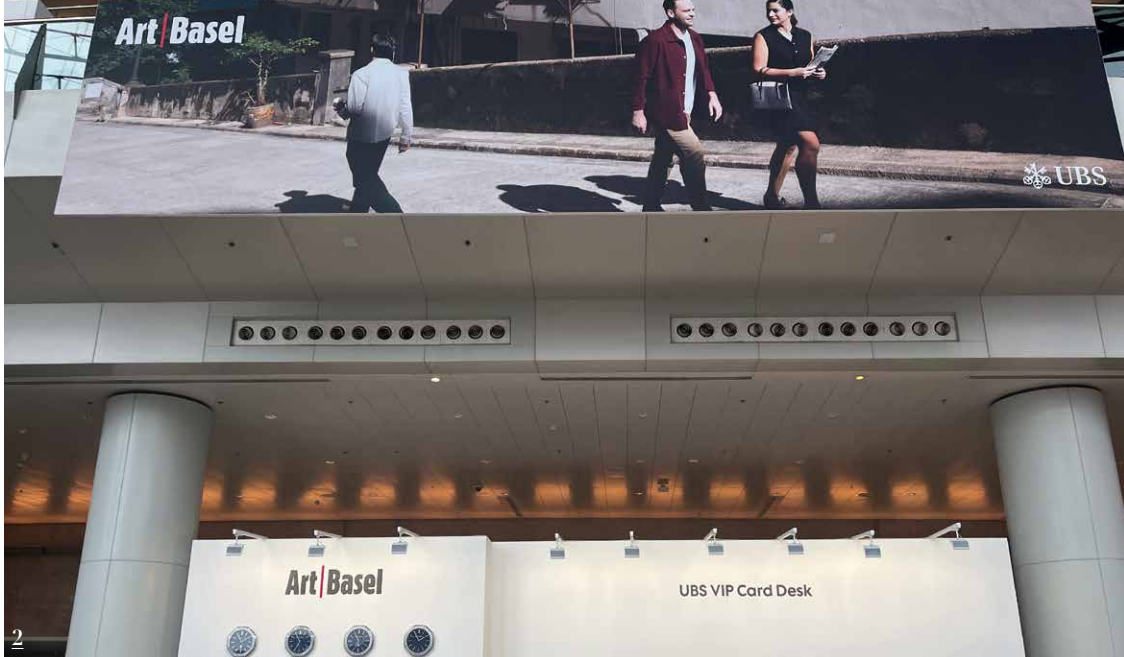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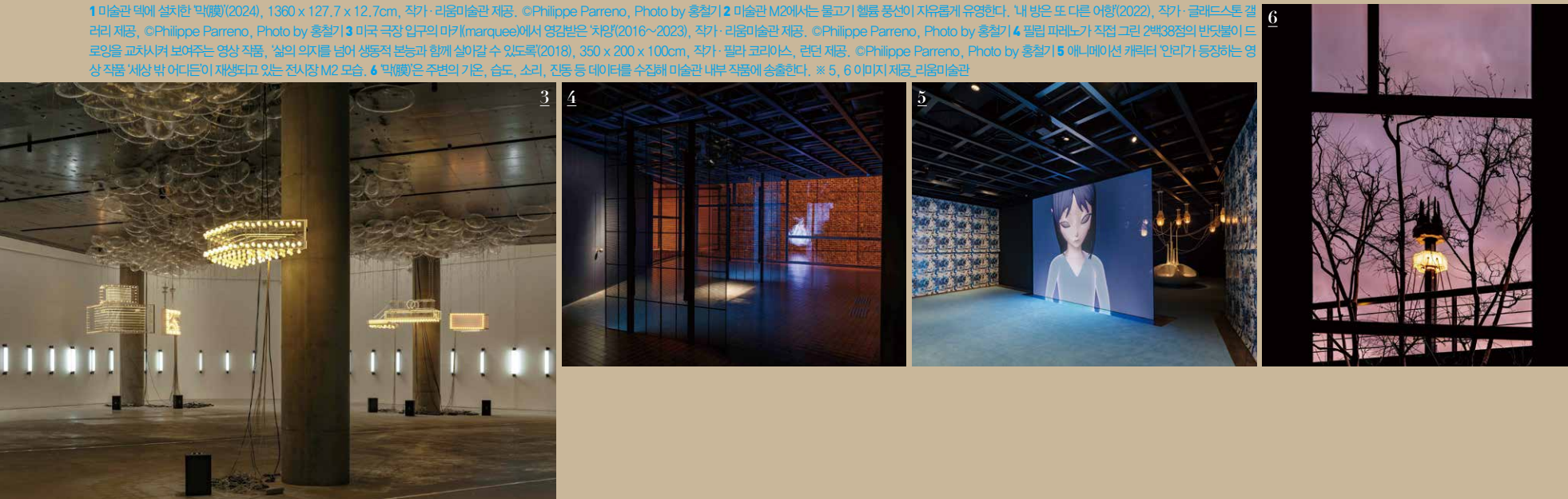
현대미술 장터에서 세계에 소개되는 한국 작가들

이트 바젤 홍콩이 열리는 3월 말, 이 도시의 미술 주간에는 해마다 큰 화제가 된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센트럴 지구에 새롭게 이스트 트릭 빌딩 H 콘서트 Queen's가 회포의 장소가 되었고, 2019년에는 센트럴 지구인 명소 타이완 센터 포 헤리티지 앤드 아트(Tai Kwun, Centre for Heritage & Arts)가 유명한 하이퍼리얼리즘. 중앙 경찰서, 빅토리아감옥 등 영국 식민지시대의 역사적인 장부 건물을 살려 마스터 플랜의 오묘소리로 탈바꿈시킨 사례다. 그리고 타이완인 도시에서는 팬데믹 기간을 견뎌내고 이트 홍콩에 일어난 첫번째 잔잔해에는 도미노스 코넵트파티의 비주얼을 문화뮤지엄을 재창하는 한비주얼 M+가 주인공이 된다. 워낙 큰 공간이기에 문화



Back in full Swing?

지구촌의 하늘길이 제한되었던 팬데믹 기간, 해마다 3월이면 '현대미술로
몰던 홍콩의 봄을 그리워했을 다국적 문화 예술 향유자가 많았다. 글로벌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
(Art Basel in Hong Kong)이 열리는 3월 말, 북적임 속에도 오색찬란한 매력이 흐르는 아트 주간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러다 지난해 봄 드디어 다시 개방하긴 했지만 행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행
규제가 풀리는 바람에 지역에 따라서는 미처 발걸음을 하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마스크를 쓴 얼굴이 거의
사라져버린 울봄에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홍콩다운' 다국적 장이 원원하게 펼쳐질까? 적어도
아트 바젤 홍콩 2024에 에디션은 단단히 채비를 한 모양새다. 오는 3월 26일 VIP 프리뷰로 시작되는
페어에 40개 국가와 지역의 2백42개 갤러리가 참가해(전년 대비 37% 증가) 팬데믹 이전 규모로의 복귀를
일궜으니 말이다. 도시 곳곳을 수놓을 다채로운 행사를 둘러싼 폭발적 열기도 얼마나 되찾을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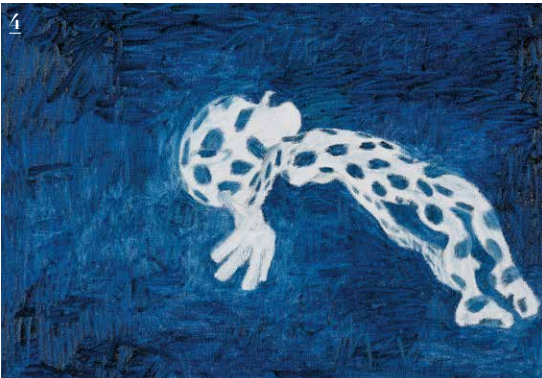


은 3월 말 학교 갤러리에서 바셀 총공의 메인 인형인 ‘갤러리칼리’를 전시했다. 갤러리에 출품되는 정장작의 작품, Memory of Amini(2026/3), Paper and acrylic, Courtesy of Hagekaze Gallery. 2. 2년 21시간 걸릴테니 10년 넘는 7가지 티셔츠를 ‘바셀이 바셀을 혼동한 무류’에 대해 2026년 2월과 2027년 거처 오는 3월 29일까지 30일/까지 홍콩 천안문에서 테라KCEC에서 2024년 행사를 연다. 이바셀 갤러리에서 다비드 UBS와 함께 이바 및 매트 리프먼은 운송하는 두 디자인 합업 활동을 산한다. Photo by 고성진 3. 대형 실용 프로젝트로 인간가 있는 인류문화Encounters’는 총공이 16개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11개에서 바셀 총공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 시아-이 가넬로프 원주민 예술가이자 디자이너 Daniel Boyd)와 무인 문화는 프로젝트를 총공과 미국 미술관인 Pacific Place에서 전시 될 것이다. 국립박물관에서 전시(Slaton)가 개인적으로 아시아 무인 문화의 스윙 퍼블릭 프로퍼티 Swire Properties)가 지원한다. Daniel Boyd (Kudjia/Gangulu), Untitled(2023) Courtesy the artist and Slaton. 4. PKM 갤러리 ‘갤러리 3’에서 아티스트 선더오는 구약성서구약적 작품들, 둘째 바셀 바셀의 한국판 작자. Ko Jeong A., After CURIOSUS(2016~2017, the artist, oil painting on canvas, 40×30×2cm, Courtesy of the artist & PKM Gallery. 5. 한글 갈래갈래 작품 ‘다시바셀’에서 아티스트는 사치사지 간경의 작품, 시물의 사치를 수백 배 확대해서 큰 공을 입히는 것처럼 이자 인제 바셀에 한층 더 깊게 감정을 는 작가의 행위를 통해 청각적 Order Sequence를 선보인다. Kyoungjae Kim, Optical Sequence 1-5-10(2024, Archival pigment print, 120 × 90cm ©Kyoungjae Kim, Courtesy of the artist and Whistle. 6. 벨린스키의 열등 물음과 구아타마린 섀도 포스터에는 아트(Tai Kunw, Centre for Heritage & Arts). 왼쪽 건물은 타미널 네 에 있는 한때 술칸 JC 컨템포러리 오수. 우측의 자랑할 건축가 두이오 에는 하워드 앤드 파머H&P 건축 사무소의 작업이다. 2018년 5월 문을 열었다. 이바셀 사대의 패션적인 조도에 함께하여 현재 안으로 외 관경과의 빌딩들은 이반 베르나르도 피코몬 타미널은 바셀 총공과의 협업으로 패가 가진 피코몬의 삶과 예술 이바셀의 스폰서십의 전파로 확대되었다. 이바셀 타미널 행동도 소개했다. Photo by Ivan Bean o Herzog & de Meuron. All rights reserved © 2024 이재민 글쓴

처지칠 지경에 이르러 드디어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데다, M+ 설계를 맡은 세계적인 건축가(우리나라의 송은호씨)만 신기술 설계로 잘 알려진 스위스 건축가 듀오가 이끄는 헤야츠 앤드 모몬(HdM) 건축 사무소가 M+ 프로젝트에 맡겼다는 만나 인터뷰를 할 기회도 있던 터라 필자는 자넛해볼 아트 주인공에는 주로 M+에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다.

물론 이는 아무래도 아트 비평 전공자의 주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될 수도 있다. 일단 대외적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돌아왔을 뿐 아니라 작품들 자체, 특히 고집 바단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존에 보여왔던 것이 때때로, 줄줄이 또 패아에 참가한 한국 갤러리 목록은 대동소이하며, 우선 메인 행사인 갤러리(Galleries) 섹션에는 국제갤러리를 비롯해 PKM 갤러리, 갤러지, 초, 현화랑, 갤러리비튼, 이리모도, 라운, 우산 등도 포함된다. 해외 갤러리에 소속하는 한국 작가들도 눈에 띄는데, 악셀 베르보르트 갤러리(엔트위프, 홍콩)에서 선보이는 김수자(Kimsooja)작가진 STP(스피어)가 출품 명단에 올린 사토오, 이불, 양혜규 등의 작가가 있다. 갤러리의 메인 부스 내에서 주로 전 시도를 다룬 '캐비라' 섹션에는 33개 갤러리가 프로젝트를 들고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조현창이 자체 제작한 박사보의 회화 시리즈를 선보인다. 국제갤러리는 대형 설치 작품으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안익주(Encounters) 섹션에도 참가하는데, 이의 '비틀'은 무대로 활용되는 인조인민 예술가 대열 보이드(Diebody)의 외부 인터유넌트 프로젝트가 포함된 단거리 피파픽 플라스틱에서 전람 예정이다. 양혜규 작가의 작품 '컨테넌트스(Contingent Spheres)'(2020, 2022)도 국제갤러리, 쿠리무토, 상탈 크루엘 갤러리의 합동으로 안익주에 선보인다. 양혜규 작가는 런던 하이워드 갤러리에서 열릴 개관전을 앞두고 큐레이터 몽 마(Yung Mai)의 사회로 컨셉아트스 프로그래머에서 관계를 직접 만날 예정이기도 하다. 신진, 유망 작가의 개관전에 집중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ies)' 섹션에 참가하는 한국 작가로는 사조작가 김경태(웨일스 갤러리)가 있다.

본연의 스케일을 찾은 올해 행사는 아트 비젤 홍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2013년 첫회를 치른 이래 10년(decade)이 지난 시점인데, 마침 제2기를 이끌어 나가게 된 아트 비젤 홍콩 디렉터 안젤라 시앙-러(Angelle



Siyang-Le)는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컨퍼런스와 아트 신의 토대를 쌓았
다. 이제 다음 장은 글로벌 관점에서 아시아 아트 신에 대한 인식과 전략
을 구체화하는 시기와도 겹친다며 "여기서 커뮤니티-치환의 지점 없이는 불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중화된 강연이 풍부한 시장-치환의 지점으로 시
를 찾았는데 "여기서 커뮤니티는 홍콩이나 이라크 아시아 지역 커뮤니티를 뜻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시장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기동
과 협업을 하거나 추진 중인데, 올해는 타이완을 새 파트너로 삼았고, "타
이완 친화적 퍼포먼스의 발전 작품으로 거둔 대중을 위한 쇼케이스(public
showcase)의 장으로 변모된 예경이"라면서 다음 강제를 위한 쇼케이스(public

Men in Blue

자유와 남성미의 상징이자 볼수록
답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자아내는 컬러,
블루 다이얼을 품은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통블루 스타 레거시 니콜라스 워치 크로노그래프** 1821년 최초의 영국 크로노그래프를 발명한 니콜라 루세를 기념해 제작한 타임피스로 하단에 수평으로 위치한 2개의 회전 디스크가 특징이다. 각각 도넛무서 크로노그래프와 60초, 30분 카운터 기능을 갖추었으며, 미모나 파열 없이 작동 가능하다. 지름 4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MB R200 매뉴팩처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천1백90만원. 문의 1877-5408

파타리 루이노르 미라나 골드테크™ 루이노르 컬렉션의 정제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구리와 백금으로 이뤄져 강렬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44mm 사이즈의 브러시드 파타리 골드테크™ 케이스를 갖춘 모델이다. 블루 산-브러시드 다이얼과 디스크 블루 칼라와 악아더 스킴으로 꾸민 감성을 전한다. P.9010 칼라로 구동한다. 3천6백만원대. 문의 1670-1936

에르메스 워치 이브 레옹 드 라본 북반구와 남반구의 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더블 문페이즈를 장착한 워치로 2019년에 GHX에서 재발더 & 테스트노미 워치 부문을 수상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지름 43mm 옐로 골드 케이스에 푸른색을 띠는 보석의 한 종류인 듀머 타이타이트로 다이얼을 장식하고 흰색 천연 자개로 달을 재현해 신비스러운 느낌을 완성했다. H1837 에르메스 매뉴팩처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블가리 워치 로미오 오토매틱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팔각형 케이스가 아이코닉한 매력을 더하는 브랜드 대표 워치. 로미오의 영광과 이탈리아의 디자인,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을 모두 담은 현대적인 스타일의 상징이다. 클루드 파피 마강 기법이 돋보이는 엔트리 사이트 다이얼과 함께 슈파-루이노바® 렌즈, 이워 마커를 갖추어 최상의 가독성과 함께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선사한다. 1천300만원. 문의 02-6105-2120

파타리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셀프 와인딩 세계에서 가장 얇은 4.3mm 두께의 셀프 와인딩 워치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을 보여주는 타임피스다. 지름 41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뛰어난 디자인의 블루 컬러 다이얼과 같은 색 알바니오터 스킴으로 통일감을 주어 모던함을 완성했다. 자체 제작 910P 오프트-신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4천9백만원. 문의 1668-1874

쇼파드 알파인 이클 세련된 스포츠 워치의 성격과 같은 디자인으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실루엣이 돋보인다. 지름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독수리 눈에서 영감을 얻은, 갈바닉 차폐된 독특한 칼라감의 블루 다이얼로 포인트를 주었다. 쇼파드 01.01-C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약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2천3백37만원. 문의 02-6905-3390

까르띠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루이 까르띠에가 유망한 비행사 알베르토 산토스-두몽을 위해 제작한 최초의 손목시계로 역사적인 의미와 정체성을 지녔다. 스위치 형태로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탁월한 균형미를 갖춰 미학적으로도 완성도 있는 모습을 갖추었다. 스틸 케이스에 그래픽(인선) 멋진 블루 다이얼과 아이코닉한 검 모암 스틸 핸즈가 특징이다. 오토매틱 와인딩 매커니즘 무브먼트, 1847 MC 칼리브로 작동한다. 1천1백만원대.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원진**

Walking in Joy

자연스러운 품위와 세련된 맛을 겸비한 맨즈 스니커즈,
photographed by **oh hyeon sa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퍼와 스웨이드같이 다양한 소재의 조합이 돋보이는 동시에 카카와 네이비 컬러가 차분한 고급스러움을 전하는 1T 스니커즈 1백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자유분방한 느낌을 전하는 그래픽이 로고 프린트 디테일이 특징인 맥퀸 그래픽 트레이드 슬리 케이스 엄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슈즈 전체를 감각적인 그린 컬러로 완성해 아린 촉매트 포인트가 도아줄 레이스와 스니커즈 인 그린 레더 워드 디테일 1백15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사이트 자퍼를 장착해 신고 벗을 때 유연함을 더하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연보성 처리한 팬디 플로우 레퍼와 블루 칼라의 사선 F 디테일의 힘이 돋보이는 팬디 플로우 스니커즈 1백만원대 **팬디**, 문의 02-544-1926, 블랙과 화이트 컬러 조합이 심플하고 시원한 맛을 전한다. 이렇듯 분예 메종(아이코닉한 디테일을 가미한 프리닷 스니커즈 1백17만원 **발렌티노 가리바니**, 문의 02-2015-4655, 블루 스웨이드 소재에 다들 오블리크 모티브 디테일을 더해 영한 감성을 부여하는 다들 오블리크 자카드 B33 테니스 스니커즈 가격 미정 **다들 맨**, 02-3280-0104 에디터 **윤자경**



올 소재 재킷과 쇼츠,
블랙 로퍼, 버블 디테일을
더한 미디엄 사이즈 백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V 로고 벨트 디테일을 가미한 바진 울
100% 티블레 2백50만원 **발렌티노**.
유연한 나파 가죽을 인트라자이트
위빙으로 정교하게 완성했다. 슬라이딩
크로스 스트랩과 낫 디테일을 갖춘
틀 핸들 백 1천만원대 **보티가 베네타**.

Bigger is Better

넉넉한 수납력과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리스함까지 챙겨줄,
다시 돌아온 빅 백.
photographed by lee dam bi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인 파르미데에서
영감받은 에펠과 칼렉션의 0.9로
18K 화이트 골드 총 2.57캐럿의 1백5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드롭 스타일로
완성했다. 3천1백만원대 **클로프**.
100% 모 소재의 코트와 팬츠 가격 미정,
송아지 가죽 소재의 하그틀 핸들 백
3백40만원대 모두 **파루카모**.



스트라이프 디테일을 가미한
네이비 팬츠 2백48만원 **케이트**.
보다 넉넉해진 볼륨과 커진 금속
부품 등의 상세한 디테일을 가미한
토고 카프 스킨 소재의 메시 클리백
2천7백91만원 **에르메스**. 에디터 소장인

모델 Diana(Jennifer Model)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사이클

프라다 02-3442-1830
파루카모 02-3430-7854
클로프 02-3442-4706
발렌티노 02-2015-4655
보티가 베네타 02-3438-7682
케이트 02-6805-3529
에르메스 02-542-6622



Peach Fuzz

2024년을 대표하는 컬러로 은은하고 연한 코랄
컬러인 피치 퍼즈가 선정되었다. 희망과 배려의 상징인
따뜻하고 포근한 색상을 입은 패션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oh hyeon sa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그나처 RL 모노그램 침금장치가 아이코닉한 감성을 전하는 RL 888 박스 카프 스킨 크로스 보디 4백만원대 **발프 로렌 칼렉션**, 문의 02-3467-6660 2024, S/S 남성 칼렉션 런웨이에서 선보인 독특한 하프 프레임의 아세테이트 소재 선글라스 가격 미정 **프라다**, 문 의 02-3442-1830, 강렬한 컬러와 광택이 돋보이는 네일 레커 베르니 아 옹글 페기 섀넌 414 **구찌 뷰티**, 문의 080-850-0708, 관능적인 애플리 게젤 향에 생동감 넘치는 신티한 오렌지 노트를 더하고 제스민과 로즈 야코드, 파슬리와 베타베르로 마무리한 아이코닉 향수 코코 마드모아젤 EDP, 100ml, 27만5천원 **사넬 뷰티**, 문의 080-805-9638, 볼륨한 발룬 세이프의 프레임이 목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코랄 핑크 컬러 캐츠 아이 선글라스 48만원 **로에베**, 문의 02-3479-1785, 고급 향취의 프레임으로 스포티한 감성을 더하는 플랫 마스크 선글라스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 쿨**, 문의 02-6105-2226 2024, 크루즈 칼렉션 중 밝힌 디자인의 메탈과 레진 소재 브로치 가격 미정 **사넬**, 문의 080-805-9638, 버튼과 슬릿 디테일의 라이트 핑크 대벌브라스트 캔버스 재킷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521, 패딩 디테일과 마이크로 사이즈로 귀여운 액세서리가 되어줄 나파 가죽 소재의 글램 슬렐 베이비 백 가격 미정 **마르카자렐라**, 문의 02-772-3234, 롤리싱 카프 스킨으로 빈백임을 부어하고, DG 로고로 포인트를 준 2024 프리 S/S 칼렉션 슬랑백 1백40만원 **플레자르 바나**, 문의 02-3442-6888, 리피아 소재와 피치 코랄 컬러로 신티한 감 성을 부여하는 트로피칼리아 마이크로 백 가격 미정 **마르니**, 문의 02-772-3233 에디터 소장인

홀스빗 체크 디테일의 그레이 & 블랙
울 더블브래스트 포멀 재킷 5백만원,
그레이 홀스빗 체크 울 포멀 웨이스트
코트 2백11만원, 그레이 & 블랙 홀스빗
체크 울 와이드 팬츠 2백55만원,
조던 홀스빗 디테일의 그레이 레더 로퍼
1백31만원 모두 **구찌**.



(왼쪽) 실크 소재의 셔츠
4백65만원, 카프 스킨 소재의
쇼츠 8백30만원 모두 **에르메스**.
(오른쪽) 니트 소재의 탑
6백14만원, 램스킨 소재의 쇼츠
8백30만원 모두 **에르메스**.



(왼쪽) 포플린 프린트 셔츠, 블랙
컬러의 울 쇼츠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오른쪽) 포켓 베스트, 크림 컬러의
레인코트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네이비 & 메탈릭 스레드 하운즈투스 트윈드
카디건, 블랙 콘트라스트드 까나쥬 자카드의
그레이 & 메탈릭 스레드 캐시미어 크루 넥
니트 롬, 패스 포켓의 그레이 까나쥬 블렌디드
코튼 & 울 트윈드 라지 팬츠, 네이비 트윈드
까나쥬 블랙 라버 슬 루테늄 디올 참 버클
버벌로 로퍼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맨**.



스트럭처드 코튼 멜랑지 재킷,
나파 소재의 레더 셔츠, 스트럭처드
더블 멜랑지 스트레치 슬림 핏 팬츠,
나파 소재의 레더 타이, 양귀족
소재의 인트레치오 워킹 리플리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다.**



(왼쪽) 베이비 캐시미어 소재의
카디건 6백51만원, 베이비 캐시미어
소재의 크루 넥 스웨터 5백11만원,
바진 울 & 라틴 & 캐시미어 소재의 팬츠
2백29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오른쪽) 라틴 소재의 재킷 6백69만원,
라틴 소재의 하쿠산 셔츠 1백29만원,
라틴 소재의 팬츠 2백11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왼쪽) 양가죽 소재의 레더 셔츠
5백10만원대, 화이트 티셔츠 40만원대,
코튼 소재의 캐주얼 팬츠 90만원대
모두 **토즈**, (오른쪽) 피크트 라펠
더블브레스트 재킷, 쿠투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자형시**.



우븐 소재의 다이에 크롭트 맨디 재킷
가격 미정, V넥 메리노 울 캐주얼 패턴의
베스트 1백75만원, 클래식 플레어드
울 팬츠 가격 미정, LV 체커 데비
가격 미정 모두 **루이비통**.

헤어 **경민정**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Marijin(JS Agency),**
Song Likun(Jennifer Model)
스타일리스트 **채 한석**

구찌 02-3452-1521
에르메스 02-542-6622
로로피아나 02-546-0615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디올 맨 02-3480-0104
프라다 02-3218-5331
토즈 02-3438-6008
자형시 02-3479-6137
루이비통 02-3432-1854



감각적인 소품으로 서재에 대한 남자의 로망을 가득 채워줄
스테이서너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감각적인 소품으로 서재에 대한 남자의 로망을 가득 채워줄
스테이셔너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illegible][illegible]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메이크업에 생기를 더해줄 시간이 왔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스프링 코즈메틱.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메이크업에 생기를 더해줄 시간이 왔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스프링 코즈메틱.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이시영, 김보민, 김보민, 김보민

(왼쪽부터 차례대로) **구락주 오디퍼를 발 릴드 드레이어** 발광발광한 괴물이 떠오르는 홀로홀과 프루트 계열의 파공으로 네덜란드, 오렌지 블라썸, 화이트 머스 노트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100ml 25만9천원, 문의 1644-4490 **오렌지 유니버설 불리블리데류체 블루오 리아티드** **에디션 2**의 첫 번째 보충 용과가 마스터 구루기 보충 용과 오디퍼와 함께 일등 사출을 오디퍼 용에 합체해 축축한 질감을 선사하며, 칼라가 든 은은한 화이트 머스 노트 모두 병 없이 사용할 수 있다. 7g 65천원, 문의 1544-5114 **에메랄드 앤드 블랙스 48 울트라블리데류체 리미티드 에디션** 9위하고 애프터글라스는 마스터 구락주기 강도보다 비어울라 컬러를 조합해 보충용기 7개이다. 278ml의 탄산이 들어간 산뜻한 칼라를 선사한다. 15ml 1천원, 문의 02-310-5174 **블루 글로움 플레이스 나츠크림 크리미한 텍스처가 발광적 조성과 불광을 함께 해주는, 축축한 포플라머 블루의 광택을 강조하고 맑은 생기를 연출한다. 7.3g 46천원, 문의 02-3440-2782** **나. 에프터글로움 오버라지니 블루를 아시세도 팔레트** 라블린한 로즈, 파더부터 뉴트랄까지 로맨틱한 핑크 톤 컬러 12가지로 구성했다. 뷰어 아시세도 파더먼트를 함유해 강렬한 컬러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1.2gX12 82천원, 문의 080-5564-7700 **조지아 이비리, 핑 마이스트르 시트 스킨즈 뉴비글라 일렉션 #14 스킨링**을 타임라인과 한두 세에이 때맞춰서 사탕스톤 무드의 핑크를 섞어 세련된 핑을 선사한다. 스킨케어 성분률 80% 이상 함유해 세럼처럼 축축한 질감을 만지거나, 4ml 5만8천원, 문의 080-022-3332 에이더 **올라지**

editor's Pick

생기 있고 탄력적인 피부 컨디션을
선사할 뷰티 리스트를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맥 맥시컬 샵키 매트 립스틱 #오버스테이먼트 맥의 총알 립스틱이 대체로 40가지 컬러와 부드러운 매트한 파우더로 새롭게 탄생했다. 평소 맥 제품을 애용하고 있어 더욱 반가웠던 이번 신제품 중 레드빛이 살짝 도는 오렌지 컬러 라인의 오버스테이먼트를 선택했는데, 사마바터 생분을 함유해 보습감까지 더해줘서 편안하면서 선풍한 발색이 만족스러웠다. 3.5g 3만8천원대, 문의 02-3440-2782_by 에디터 신장민

선풍수 상백선물루이도 SPF 50+ PA+++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풍수의 시그니처 섀도링, 상백크림이 다양한 구성으로 출시된다. 그중 상백선물루이도는 물처럼 흐르는 제형으로 로션처럼 발려 나뉘며 피부가 시원해지는 것이 특징. 한국도 자기가 지닌 고유한 향과 화이트 페퍼지 디자인 또한 사랑받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50ml 6만원대, 문의 080-023-5454_by 에디터 신장민

보아레 라 크림 데마퀼란트 크림 텍스처가 피부에 닿아 부드럽게 오일 상태로 녹으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깔끔하게 클렌징해준다. 사용 후 즉각적으로 촉촉하고 영양감이 느껴지는 피부를 만들 수 있으며, 로즈 워터와 로즈힙 오일을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100ml 13만3천원, 문의 02-310-5025_by 에디터 윤지영

이자룩스 라하 트루셀 이드밴스드 스카피드 피부 관리에 진심인 에디터가 가장 고심해서 고르는 뷰티 아이템은 섀도링. 이 제품은 공기처럼 얇고 가볍게 발리는 에어 리퀴드 제형을 자랑하며, 사프란과 로투스의 리얼 세포를 함유해 탄탄한 피부를 선사한다. 50ml 2만6천원, 문의 080-023-7007_by 에디터 윤지영

메이크업 포에버 HD SKIN 하이드로 글로우 파운데이션 1R02 전 세계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훌륭한 지용력으로 장장이 가득한 제품이다. 도망이나 오일을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내 피부처럼 얇게 밀착되어 빛나는 광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스킨케어 베이스 효과가 하루 종일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유지해준다. 30ml 7만2천원대, 문의 080-514-8942_by 에디터 윤지영

VDL 엑스퍼트 컬러 언더아이 프라이머 이 셀린 바빠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마다들이 도드라지는 편. 아침 때 어두운 눈가에 생겼던 다크서클을 언더아이 프라이머를 자주 바르면, 자연스러운 옅은 카키색은 물론 트러블해당부문산, 호호바 씨오일 성분이 들어 있어 촉촉함이 지속된다. 그림감이 좋은 패파자라 휴대성도 좋다. 5.5g 1만6천원, 문의 080-023-7007_by 에디터 신장민

디티크 라 드로거리 컬렉션 탈취용 톨 스프레이 바질과 민트, 토마토 잎의 익숙하고 프레스한 향을 담았다. 실내 나쁜 냄새의 원인인 미량자를 제거해 공간을 정화해주는데, 그 향이 너무나도 취향 저격이라 향수처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다. 150ml 10만1천원, 문의 02-3446-7494_by 에디터 장리윤

다비네스 오이이 울간원 밀크 스킨케어와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선사하는 리브 인 스프레이 트리트먼트로 샴푸 후 바로 컨디셔너를 사용하기 귀찮은 이들에게는 필수품. 10~15회 정도 팔팔해 타월 드라이한 모발에 골고루 바른 뒤 건조시킨 뒤 골고루. 특히 수분이 부족한 건조 모발의 경우 은 충분히 보습해 모발 끝까지 그르게 퍼버리면 한층 더 부드러운 머릿결과 광택을 확인할 수 있다. 135ml 4만9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신장민

폴리노아스 25% 바이틴 C+글루타민산은 항노화 세럼 피부 노화의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세럼이 필요했는데, 미친 폴리노아스에서 부드러운 텍스처의 신제품이 나왔다. 바이틴 C와 항산화 성분을 활성화하는 글루타민산 성분은 조화를 이뤄 탄생한 이 제품을 알뜰한 동안 꾸준히 사용했다니 피부가 화사해진 것은 물론, 피부 탄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30ml 8만9천원, 문의 1661-6656_by 에디터 신장민

더 하스토리 오브 후 천물단 화물 아이 리프트 피부가 얇은 편이라 탄력에 신경 쓰다 보니 아이 크림을 고를 때 탄력력이 좋고 텍스처가 가벼운지, 흡수력이 좋은지 따져본다. 이러한 상백지를 갖춘 천물단 화물 아이 리프트는 광채 리프팅 탄력을 위한 특허 성분 'Lumi-Active Peptide™'와 '나노에이트™'를 함유해 잔주름을 탄력적인 노가 피부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었다. 20ml 23만원, 문의 080-023-7007_by 에디터 신장민

룩시광 스킨프라이머 나이트 세럼 스킨케어에도 사용하는 고농축 에센셜 오일 콤플렉스를 함유해 밤사이 최상의 두피 컨디션을 위한 영양을 공급하는 스킨프라이머. 끈적임 없는 워터 젤 텍스처로 베개에 묻어나지 않으며 머리카락도 딱지치 않아 신하다. 다섯 가지 허브가 조화를 이루는 편안한 향은 취침을 오게 한다. 50ml 4만5천원대, 문의 02-2054-0500_by 에디터 장리윤

에스티 로더 데벨웨어 스포츠 글로우 메트 쿠션 쉘 놀리는 커버력과 지속력으로 찬사받는 데벨웨어 파운데이션의 쿠션 버전이나니 반짝일 때를, 비드자마자 착한 피부 톤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인상이 밝아진다고 동시에 눈 밑에 있던 잔주름이 말끔히 커버되어 늘었다. 매끈하게 마무리되지만 은은한 글로우를 만들어 피부를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 것 역시 장점. 12g+12g 1만3천원대, 문의 02-6971-3212_by 에디터 신장민

랑콤 압슬루라이트 크림 압슬루 크림은 텍스처에 따라 라이트, 소프트, 리치로 나뉘는데, 그중 라이트는 텍스처가 얇고 선풍해 가볍고 빠르게 흡수된다. 피부 탄력과 광채는 잡아주고 영양을 공급하는 인티에이징 기능은 그대로. 비쁜 아침에 제격이다. 60ml 49만5천원대,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장리윤



SHOWROOM

BEAUTY

자창시 뷰티 프리즈 리브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 SPF 45/PA+++ 자창시 뷰티에서 윤광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신제품 쿠션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프리즈 리브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은 가볍고 촉촉한 텍스처로 스킨케어 효과와 더불어 수분감과 윤광을 담아 하루 종일 빛나는 피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쿨톤, 월톤, 뉴드럴 톤 등 다채로운 이색적인 피부 컬러에 맞춰 67지 세이드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80-801-9500

발몽 루미아티 SPF 50+ PA+++ 발몽에서 디자인은 봄에 효과적인 스카커로 루미아티 컬렉션의 자외선 차단제, 루미아티를 공개했다. 도심 속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이번 신제품은 바르는 순간 흡수되어 백탁 현상이나 번들거림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흰 뽕나무 뿌리와 인삼 추출물, 그리고 알프스산맥의 청정 자연에서 탄생한 스위스 피도 콤플렉스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활력을 더한다. 문의 070-4352-5203



프레드보 보페 2024 러브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프레드보 보페에서 기존 래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듀이와 퀴아징 페이스 인센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인 러브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큐피드에서 영감을 받아 레드 컬러의 하트 문양이 포인트인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3월 30일까지 프레드보 보페 팝업 스토어에서 첫선을 보이며,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80-564-7700



프리다 2024 라-리온 캠페인 미우치아 프리다가 백에 처음 적용한 이후 프리다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소재가 된 나일론, 버려지는 합성 소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면서 해양 보호에 관한 책임을 다하고자 프리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라-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기존 소재 대신 재생 나일론의 원시인 에코폴을 사용해 새로운 라-리온 컬렉션을 캠페인과 함께 선보였다. 문의 02-3442-1830

말바리 데님 소재로 새롭게 해석한 백 2종 출시 영국 럭셔리 라프시프를 지원하는 브랜드 말바리에 봄을 맞아 데님 소재를 사용한 백 2종을 출시했다.



다. 브랜드의 아이코닉 백 '앰벌리 시엘'과 알렉시엘을 각각 스몰과 미니 사이즈로 구성했으며,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으로 슬더와 크로스 백 등 다채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2018-1439

제이린드버그 2024 아웃도어 컬렉션 공개 제이린드버그에서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아웃도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자사 개발 원단인 3L 프로 워터프루프(3L PRO WATERPROOF) 소재를 사용하고 3XDRI 기술을 적용해 우수한 발수력을 자랑한다. 강렬한 레드 또는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 아우터, 티셔츠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선보였으며, 접을 수 있는 프로 백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문의 02-3479-1909

문의 02-3479-1909

FASHION



불가리 2024 하이 서머 컬렉션 불가리에서 이탈리아 이스케이프(Italian Escape, 이탈리아로의 일탈)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제품 및 액세서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 중 백 아이템 라인에서 해변의 모래사장이 연상되는 골드부터 부드러운 핑크까지 다채로운 컬러 플레이로 구성했으며, 송아지귀족 소재의 세르펜티 톨 핸들 미니 백, 세르펜티 포에버 데이-투-나이트 슬더백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105-2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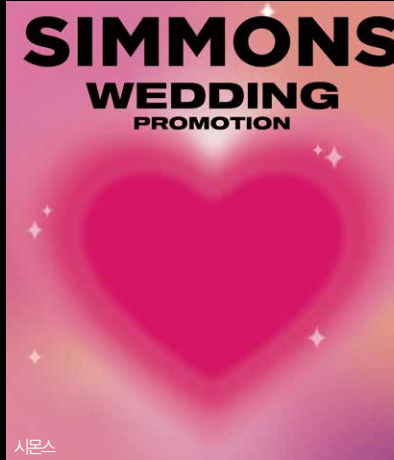
소메 2024 조세핀 아그레드 컬렉션 2백40여 년 이상



의 역사를 지닌 하이 주얼러 쇼메에서 메종의 아이코닉한 조세핀 아그레드 컬렉션을 소개한다. 진주나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완성한 조세핀 아그레드 링은 티아타 연상되는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만날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레이아웃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42-3359

그라프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뱃글 출시 그라프가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의 새로운 뱃글을 선보였다.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는 이번 신제품은 화이트핑크엘로 골드 소재를 사용했으며, 클래식하거나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더해 완성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했다. 아울러 그라프의 첫 다이아몬드 컬렉션도 함께 공개해 팬던트, 후프 이어링, 링 등 여러 아이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프레드 프리타우언 인 마이 하트 네크리스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럭셔리한 주얼리를 선보이는 프레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프리타우언 인 마이 하트 네크리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핑크 골드 소재에 브랜드의 시그니처 하트 세이프 디자인으로 완성했으며, 중앙에 0.37캐럿의 하트 컷 핑크 사파이어를 더해 사랑을 대변하는 아이코닉한 아이템으로 로맨틱한 무드를 더했다. 문의 02-514-3721



시몬스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2024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시몬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은 매트리스 최대 20% 할인과 신제품 프리미엄 및 홈 패셔너, 베딩류 10% 할인, 특정 파우더 20% 할인 등 다채로운 혜택을 구성했다. 또 프로모션 기간 중 구매 금액에 따라 시몬스품을 선택순으로 증정한다. 문의 1899-8182



리모와 2024 오리자널 베네티 케이스 리모와가 메종의 베스트셀러를 새롭게 선보인 오리자널 베네티 케이스를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손쉬운 케이스 오픈 기능과 톨 핸들 아래 로고가 특징이며, 내부에 발수 코팅 소재의 지퍼 포켓, 케이스 뒷면에 트래블 스트랩을 구상하는 등 디자인과 성능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선보였다. 문의 02-546-3920

JEWEL & WATCH

LIFESTYLE



CHANEL.COM

CHANEL